

빛으로 광명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미가-
미가 7:7-10, 마태복음 2:1-6

정윤돈 목사님

* **미가7:7-10**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 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이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이다

* **마2:1-6**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제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이유를 발견하고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인 12월 22일에는 전문음악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된다. 성탄음악회를 할 것이다. 많이 초청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탄이 되면 좋겠다.

성경은 역사책이다. 인류 시작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말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비주류 같다. 애굽에서 요셉은 비주류였다. 다니엘과 에스더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다 비주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주류들이 다 주류가 되었다. 지금 로마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다 없어졌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훗날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당시 로마 왕은 헤롯 대왕이었다. 여러 헤롯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이 헤롯 대왕이다. 헤롯은 이두매(에돔) 족속이었다. 쪽 올라가면 유대민족과 형제다. 어떻게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이두매 족속의 부족장이었

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는 길에 에돔 족속을 만났다. 에돔 족속은 로마에 항복하고 이집트를 침략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내분이 일어났을 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헤롯 대왕은 하스몬 왕조의 공주 미리암네를 아내로 삼았고, 이 아내가 자녀를 두 명 낳았는데 헤롯 대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스몬 왕가의 씨이기도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매우 불안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불안으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과 아들들을 죽인다. 그런데 20년, 30년이 흘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한다. 불안한 헤롯 대왕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1, 2년 후에 죽는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가서를 볼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유대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당시 로마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백 년, 천 년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계획과 인도와 성취가 있다. 세상 일은 새옹지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미가는 왜 미가서를 썼을까? 미가서 7장에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우울했지만 하나님은 미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빛과 광명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에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친척과 친구도 나중에는 다 쓸도없다. 나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 남편과 부인, 부모님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거시기 바란다. 실제 전도를 안 하더라도 마음은 전도와 선교에 담고 있어야 한다. 못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참된 시작이고 성공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성공의 순간이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성공의 최종목적이 예배이고, 새로운 시작이 예배다. 또한 7장 9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어서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게 십자가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장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게 원어로 보면 완료형, 미래 완료형이다. 다 이루었고, 다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셨다.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내 삶이 어려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일수록 복음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와 선교 속으로 더욱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라.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말씀은 복음과 십자가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게 복음이다. 이 은혜를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을 품을 수 없다. 복음 안에서 승리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미가는 남유다 모레셋 출신이다. 여기서 ‘모레셋’이라는 지명은 ‘유산’이라는 뜻이다. 이는 유대인이 불신앙과 죄 때문에 모든 축복과 유산을 상실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과 모든 축복을 상실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8절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

썸은 미가의 이름의 뜻과 같은 의미이다. ‘미가’가 히브리어로는 ‘미가야후’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뜻이다. 누가 여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존재가 있느냐는 뜻이다. 누가 우리를 이해하고 감싸 줄 수 있나. 나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만한 힘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살리는 존재가 된다. 그게 전도자이고 선교사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권 속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빛된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학교선교사, 가정선교사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이 있으면 착취하고, 피해를 주기만 할 뿐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레셋 작은 지방의 출신이었지만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예언한 선지자였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왕국과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시골의 서민 출신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1. 당시 남왕조 유대와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그들은 당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에 묶여 있었다. 완전히 올무에 매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주들을 그리스도로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남북왕조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같이 무속, 점술, 우상의 틀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 지금도 국회 의원 선거하면 점집들이 난리다. 무속, 점술, 우상에 매여 있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필요없다.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니까’ 질문하며 찾아야 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저는 어릴 때 아무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독립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3) 그들은 불신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6가지 함정 속에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미가를 부르셔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다. 미가의 미션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다.

2.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광명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 다시 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어떻게 펌박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가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우리도 독립군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들은 다쳐도 운동을 포기 안 한다. 반면에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는 어디 다치면 바로 그만둔다. 국가대표는 다쳐도 포기하지 않는다. 천명, 소명,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시험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임을 붙잡아야 한다.

(3)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는 악한 것이었다. 미가 2장 2절에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라고 했다. 이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는 약탈, 강탈, 사기,

거짓말이었다.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당연, 필연, 절대는 뭘까? 또 미가 7장 2절에서 4절에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고 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서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 권력자들은 힘을 합해 악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게 그들의 당연, 필연, 절대이다. 이런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

(4) 다음은 일심, 전심, 지속의 은혜이다.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한다.

(5) 다섯 번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우리와 우리나라, 우리 가정,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사탄의 문제와 죄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게 유일성이다. 그 유일성을 여러분 안에 담고 복음화시키면 재창조,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말씀 안에 창조가 있다. 세상 것은 다 융합이다. 기존의 것들을 잘 융합하면 재창조가 일어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 주인으로 모시기 바란다.

(6) 다음은 24, 25, 영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24집중해 보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해 보라. 25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7) 마지막으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드러나서 나를 실패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표준, 수준을 맞춰야 한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개인과 후대가 계속 응답받을 것이다. 제가 인구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에서 그만큼 들어와서 총 인구는 줄지 않았다. 더 세계화 되어야 한다.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할 10가지 비밀에 대한 단어를 함께 읽도록 하겠다.

① 독립.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으라. ② 사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③ 역발상. 가짜의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④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 ⑤ 위기.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⑥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리라. ⑦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라. ⑧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⑨ Nobody. Nobody 현장 살리는 콘텐츠를 찾으면 Everybody 문화가 되리라. ⑩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리라.

끝으로 어떠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오직 우리들을 빛으로 광명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 사실적으로 내게 주신 성취될 메시지임을 경험하고 강단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에 있다면 빛이 되시고 광명이 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